

# '정책금융'의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

2016. 3. 31.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현행 미래 新성장 지원 체계에 대한 평가 .....	2
III. 향후 미래 新성장 지원 체계 개선 방향 .....	6
IV. 추진 체계 구축 및 일정 .....	11
< 참고 > .....	12

##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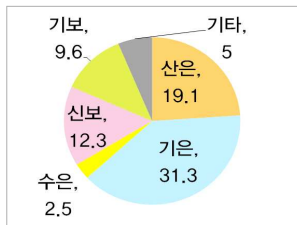
### 1. 정책금융이 경제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

-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미래 주력산업인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할 필요
  - 新성장 산업은 리스크가 높아 자금의 과소공급 등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 필요
- ⇒ 정책금융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미래 新성장 산업(이하 '新성장')에 전체 자금(약 230조원)의 약 1/3 이상을 공급

### 2. '16년 新성장 지원 : 약 80조원 이상을 공급

- '16년 중 정책금융기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新성장 분야에 약 8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 예정
  - 新성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우선 자금공급과 함께 금리·수수료 인하 등 우대 지원

<정책금융기관별 (단위: 조원)>



<업종별, 지원형태별 구분(단위: 조원)>

업종별	제조	서비스	기타
(80조원)	48	29	3
형태별	대출	보증	투자
	49	23	8

\* 과거 추세치를 활용한 추정금액이며, 新성장 지원 수요 및 제도개선 효과에 따라 변동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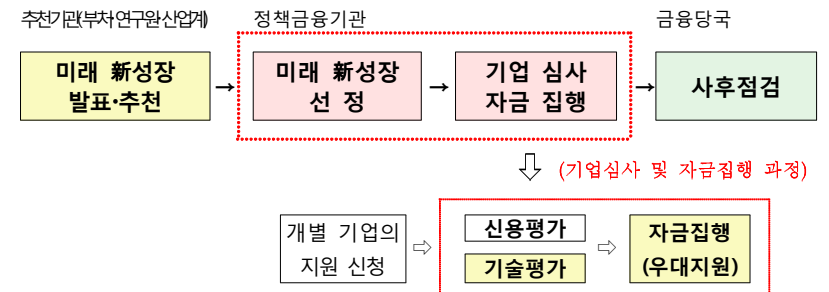
- 다만, 정책금융의 新성장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식과 관행에 묶여 적재적소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
- ⇒ 新성장 지원과 함께 정책금융의 **전 과정**을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도 추진

## II. 현행 미래 新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 【 현행 新성장 지원 체계 및 평가 】

#### ① 현행 정책금융기관의 新성장 지원 체계

- ① 추천기관별 新성장 발표 → ② 정책금융기관별 新성장 기준 마련 → ③ 개별기업 심사 및 자금 집행 → ④ 사후점검



#### ② 정책금융의 新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 ① (新성장 추천) 추천기관별 新성장 산업을 발표·추천하고 있으나, 전달체계 부재 등 정책금융기관과 유기적 협력이 미흡
- ② (新성장 선정) 정책금융기관도 제각각 新성장 기준을 운영 중이며 시장과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
- ③ (심사집행) 심사·집행 관행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융합산업 등 업종간 지원 격차
- ④ (사후점검) 공급실적 중심으로만 사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금융의 효과성 등 질적 평가와 수요자 만족도 평가가 미흡

## 1. 新성장 추천 : 추천기관과 정책금융간 유기적 협업 미흡

- ① 산업부·미래부 등 각 부처·연구원(이하 '추천기관')은 R&D 지원, 세제지원 등 정책 목적에 맞춰 新성장 산업과 기술 등을 발표

- 다만, '新성장 기준'을 정책금융에 공식 추천하는 체계는 부재

산업부	5대 유망신산업('16), 13대 산업엔진('13), 핵심소재·부품산업 등
미래부	19대 미래성장동력('15), 과학기술분류체계(과학기술기본법)
기재부	7대 유망서비스업('14), 기술집약·원천기술·신성장동력(조특법)
문화부	문화콘텐츠 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 ② 또한, 추천기관과 개별 정책금융기관이 MOU 등을 통해 일부 新성장 기업에 대해 특화상품을 출시하기도 하나,

- MOU 체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이벤트성) MOU는 체결 후 사후관리가 미흡

## 2. 정책금융의 新성장 선정 : 개별적·자의적 적용 가능성

- ① 정책금융기관은 추천기관의 新성장 기준을 자체적으로 해석·적용

- 발표한 기준을 인지 못할 경우 新성장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기관별로 실제 적용 시점에 많은 시차가 발생
- 또한, 同 기준만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시장수요·기술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에 한계

- ② 서비스업·융합산업의 新성장 기준은 제조업에 비해 모호하여 실제 정책금융 현장에서 기업 선정시 활용하기 곤란

\* 7대 유망서비스업 : 보건·의료·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대분류만 제시

- ③ 표준산업분류와 新성장 기준간 차이\*로 인한 실무상 애로 발생, 심사과정에서 담당자의 이해도에 의존하고, 자의성이 발생할 소지

\* 전반적 집행(대출신청부터 사후관리)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리하는 반면, 금리혜택 등 우대 지원 여부만 新성장 기준을 적용

## 3. 新성장 기업에 대한 자금 집행 :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

- ① 정책금융기관은 新성장 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외에 기술 평가모형 등 新성장모형을 개발·운용중이나,

- 대부분 기관이 소산업·제조업 중심으로 단순하게 운영 중이어서 분야별·업종별로 세분화된 특화 모형의 개발은 아직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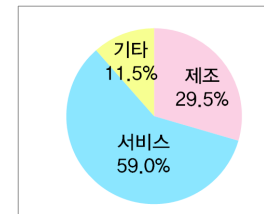
< 정책금융기관별 심사 모형 >

	신용평가 모형	新성장 모형(기술평가모형)	
		全 산업모형	업종별 특화 모형
산업	○	○	4종 : SW, 게임, 서비스(지식·교육·복지), 문화콘텐츠
기술		○	X
수업		X	1종 : 의료기관 평가모형
신보		○	X
기보		○	2종 : 지식서비스모형, 문화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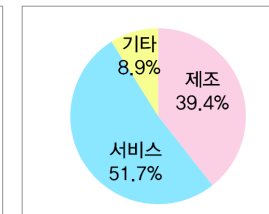
- 新성장은 과거 실적치가 아닌 미래 성장성 등 예상치를 바탕으로 향후 위험(리스크)을 측정해야 하는 부담

- ② 제조업에 치중한 자금집행의 관행·인식 등으로 新성장 분야의 자금지원에서 제조업(60.3%)이 높은 비중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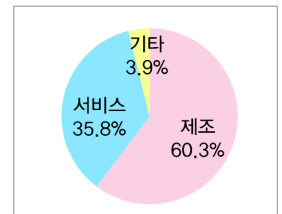
< 산업별 GDP 비중<sup>1)</sup> >



< 산업별 은행권 자금조달<sup>2)</sup> >



< 정책금융 新성장 지원<sup>3)</sup> >



1) GDP('15.3분기) 2)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15.3분기) 3) '16년 정책금융기관 新성장 지원 추정

- 부동산 등 시설담보가 많은 전통산업과 달리 특허 등 무형자산 비중이 높아 담보여력 및 자산평가에서 新성장 산업이 불리

- 현행 연간 매출액 위주의 운영자금 지원 등 자금분류 체계도 新성장 서비스업 등에 부적합하여 지원에 한계

\* 서비스업·융합산업 등은 투자에서 회수까지 1년이상 소요되어 연간 매출액이 일정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지원받은 운영자금을 新성장 분야에 활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음

③ 영업점·직원 관리 및 평가, 교육·훈련제도 등 정책금융기관의 운영 측면도 新성장 지원에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

- 영업점·직원의 실적평가(KPI)에 있어 위험성이 높은 '新성장' 지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
  - KPI가 양적 실적 및 사후손실을 축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목표 달성후 소극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
- 영업점 심사역 등 임직원의 新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변화하는 新성장 동향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도 미흡

#### 4. 사후점검 : 양적 공급실적 위주

① 新성장 지원은 연도별 업무계획에 공급목표를 부여하고,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실적 점검 중

\* 현행 평가 체계 : ① 전년말 업무계획 수립(新성장 공급목표 설정) 및 승인 → ② 당해연도 집행 → ③ 차년도 경영평가시 공급실적 및 정성평가 실시

- 정책금융기관이 제각각 적용한 新성장 기준하에서 기관간 비교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실적 부풀리기\* 문제도 상존

\*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실적이 미진하거나, 지원목표가 상향 조정될 경우 일반 자금을 지원할 기업에 대해 新성장 지원으로 재분류하여 지원할 유인이 상존

② 정성평가를 통해 新성장 지원효과 등 일부 질적 평가 실시 중이나

- 기업·산업의 성장성, 일자리 창출효과 등 질적 평가의 보완이 필요
  - 단기 효과뿐만 아니라 일정 시차 후 장기 효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

③ 아울러, 현행 평가는 공급자인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평가 중이나, 수요자인 기업·산업계 등의 만족도 평가도 미흡

### Ⅲ. 미래 新성장 지원 체계 개선 방향

절 차	평 가	개선 방향
추천기관		
미래 新성장 발표·추천	<b>유기적 협업체계 미흡</b> ① 추천기관별 新성장 발표 후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체계 부재 ② MOU의 사후관리가 미흡	<b>추천기관과 협업체계 구축</b> ① 정책금융협의회 구성 * 5개 정책금융기관으로 상설 설치 ② 정책금융협의회-추천기관간 공동 MOU 등 협업체계 마련

정책금융기관		
미래 新성장 선정	<b>정책금융기관별 개별적 운용</b> ① 개별적 운용 : 누락 또는 시차 발생 ② 표준산업분류와 괴리로 실무상 적용 애로 발생	<b>정책금융 공동기준 마련</b> ① 공동기준 마련 및 신속주기적 업데이트 ② 추천기관 발표 기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일반기준도 마련
기업심사 자금집행	<b>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b> ① 新성장 특화 모형 미진 ② 자금분류 등 자금집행 관행이 제조업에 유리	<b>新성장에 적합한 관행 정착</b> ① 新성장 평가모형 확대 (제조업 → 서비스업·융합산업) ② 산업간 격차가 없도록 자금분류, KPI 등 개선

금융당국		
사후 점검	<b>양적 공급실적 위주의 점검</b> ① 금융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단기 공급실적 중심으로 평가 ② 공급자 중심의 평가 등	<b>질적 사후점검을 강화</b> ① 新성장지원점검단을 구성하고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질적 점검과 장기효과 분석 추진 ② 수혜기업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

## 1. 미래 新성장 금융지원 체계의 정비

### ◇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업계 등 수요자와 협업체계 구축

- 실제 新성장 분야에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들로 「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칭) 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 정책금융협의회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TDB)의 임원급으로 구성 필요시 기타 정책금융기관, TCB, 산업·금융전문가도 참여

- 추천기관들과 정책금융기관들간의 상시 협의채널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지원시 적용할 新성장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
- 「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新성장 산업에 대한 상시 지원을 위해 「新성장 정책금융센터」(가칭)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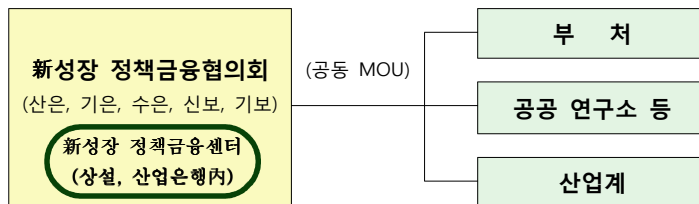
\* 新성장 정책금융센터(상설, 산은내 설치) :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

- 수요자인 추천기관(부처·공공 연구소·산업계)과 협업 체계 구축

- 추천기관과 개별적으로 체결된 MOU를 체계적으로 정비

\* 정책금융기관 공통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금융협의회가 공동 MOU 체결하되, 기관별 특화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별 MOU 체결

- 추천기관이 新성장 산업·품목기준 및 추천 기업을 정책금융 협의회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공동 MOU 마련)



## 2. 미래 新성장 선정 기준 개선

### ◇ 정책금융협의회가 新성장 공동 적용기준을 마련

- 종합적·포괄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정책금융협의회는 개별 정책금융기관의 직원들이 新성장 지원 대상 기업 선정에 활용할 「공동 新성장 선정기준」을 마련

- 추천기관이 발표·추천하는 新성장 산업을 선정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

- 정부(연구원) 및 산업계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新성장 산업·시장의 자금애로를 완화

\* 추천방식이 산업·품목인 경우 개별 기업 선정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기업·사업을 직접 추천시는 개별 기관에 연계하고 그 결과를 추적·점검

- 추천기관이 발표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도 시장수요와 기술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도 마련

- 쏠 산업에 걸쳐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준요소를 추출하고, 요소별 세부기준을 마련

미래 新성장 기준	주요 新성장 기준 항목(예시)	
	추천기준	
	① 추천기관별 新성장 산업 ② 新성장 기술·품목 ③ 新성장 유망기업 등	
	일반 기준	성장성 ① 시장성장성 ② 일자리창출 능력 ③ 글로벌 진출도 등 융합성 ① 산업간 융합정도 ② 업종별 융합 기여도 ③ 전후방효과 등 생산성 ① R&D 투자 ② 특허 보유 수 ③ 법·인프라 구축도 등

- 추천기관과 협업하여 「표준산업분류와 新성장산업간 연계표」 마련\* 등 금융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 미래부·산업부는 「미래성장동력 업종·품목 분류 연계표」 마련 중('16.3월말, 국가과학기술의회 보고)이며, 지속적인 개선 추진 예정

- 정책금융협의회가 新성장 산업 트렌드에 맞춰 시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新성장 기준을 신속·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공동 新성장 기준은 산업계, 연구계 등에 공개하여 상시적인 피드백을 반영

### 3. 기업심사 및 자금집행의 관행 개선

#### ◇ 新성장에 적합한 기술·사업 평가 모형을 적극 확대하고

##### ○ 제조업과 서비스업·융합산업간 지원 격차를 완화

- 자금회수 가능성 등 新성장 산업의 리스크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新성장 평가모형'을 업종·분야별로 확대·구축

- 현행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하여 新성장 평가모형 구축
- 단계적으로 업종별 세분화하여 서비스업 등 특화모형을 확대\*

\* 업종별 세분화 : 소산업(제조업 중심) 모형 → 지식서비스업·융합 → 일반서비스업

- 제조업과 서비스업·융합산업간 지원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의 관행을 개선

-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新성장 산업에 운영자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

\* 例 : 現 자금체계(시설, 운영)를 재검토하고, 무형자산 투자자금 지원시(운영자금) IP 담보·예상매출액 등을 근거로 자금이 확대 공급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특화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新성장에 대한 우대를 확대

\* 例 : ① 현행 新성장 특화상품(문화안성보증 IP 담보대출)을 재점검하고 상품간 연계보완  
② 추천기관과 연계하여 R&D 성과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 상품 마련

- 공급목표, 사후손실을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新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

- 新성장 기준에 따른 지원 기업수·지원액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성장률, 일자리 창출효과 등 정성지표를 보완

-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확대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

- 정책금융기관별 심사역 등 직원 연수시 新성장 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 추천기관과 공동으로 新산업 트렌드·평가모형 활용 등 정책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추진(연간 100명)

### 4. 사후점검 체계 개선

#### ◇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위해 「미래 新성장지원 점검단」을 구성

#### ◇ 일자리·부가가치 창출효과 등 장기효과 분석과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점검 등 실시

-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위해 「미래 新성장지원 점검단」을 구성

- 구성 : 금융위(주관), 산업·문화·금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산업계 전문가는 미래부·산업부·문화부 등 新성장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

- 新성장 지원 실적에 대한 양적·질적 점검을 실시하고, 정책 금융협의회의 新성장 지원체계 개선 현황 등을 점검

- (단기점검) 新성장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체계 개선 점검

- ① 실적점검 : 분기별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실적 점검
- ②수요자평가 : 매년 추천기관 및 新성장 수혜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만족도 평가(FGI 분석)를 실시
- ③체계개선 점검 : 정책금융협의회 추진 중인 新성장 지원체계 개선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 ④경영평가 연계 :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新성장 지원 관련 평가지표를 확대·반영

\* 점검단 분석결과를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예산심의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공

- (장기점검) 新성장 지원효과에 대한 장기효과 점검·분석 실시

- 일자리·부가가치 창출효과 등 新성장 지원에 따른 질적 효과에 대해 일정시차를 두고 장기효과 분석을 추진
- 장기효과 분석은 新성장 공동기준 및 평가모형 개선 등에 적극 활용



#### IV. 추진 체계 구축 및 일정

- '16.4월 '정책금융협의회'와 '新성장지원 점검단'을 구성하여 추진 체계를 구축

	정책금융협의회	新성장지원 점검단
구성	산업은행(주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원(TDB) (필요시: TCB, 중진공, 농산보, 전문가, 산업계)	금융위, 산업계, 문화계, 연구원, 산업금융전문가 등
	新성장정책금융센터(산업은행내 설치) : 정책금융기관 직원으로 상설설치	* 정책금융협의회의 新성장 지원 과정에서 부처 등 추천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 지원업무도 수행

#### □ 세부 추진 일정

주요내용	일정	추진체계
<b>① 추진 및 협업 체계 구축</b>		
1) 정책금융협의회 및 新성장정책금융센터 설치	'16.4월	정책금융협의회
2) 정책금융협의회와 수요자간 협업체계 구성	'16.2분기	
3) 미래 新성장 지원 점검단 구성	'16.4월	新성장지원점검단
<b>② 미래 新성장 공동기준 마련</b>		
1) 1차 공동기준 마련	'16.2분기	정책금융협의회
2) 공동기준의 지속 업데이트	연 중	
3) 新산업-표준산업분류간 연계표 마련	연 중	미래부/산업부 등
<b>③ 미래 新성장 모형 구축 및 제도개선</b>		
1) 1차 공동모형 마련	'16.3분기	정책금융협의회
2) 집행 관행 개선	연 중	
3) 정책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新성장 교육 강화	연 중	산업부 등
<b>④ 사후점검</b>		
1) 월별 新성장 지원실적 점검	연 중	新성장지원점검단
2) 정책금융 효과성 점검 및 수요자 만족도	'17년 이후	

#### 참고 1

#### 新성장 지원 : 총 80조원 세부내역

창조경제 분야	대출 : 45.6조원	<b>① 산은, 기은, 수은</b> 을 통해 방송·통신, IT, 바이오헬스, 제조업, 물류·운수 등 창조경제 분야에 <b>44조원</b> 공급 <b>② 중진공</b> 을 통해 新성장기반 지원*, 개발기술사업화,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을 통해 <b>1.6조원</b> 지원 <small>* 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 고성장기업, 기초제조기업지원 등</small>
	투자 : 7.5조원	<b>① 산은, 기은, 수은의 新성장분야에 대한 직·간접 투자가 6조원</b> <small>* 산은의 경우 유가증권 매입, 직간접 펀드조성 형태로 참여</small> - 이 중 신·기보에 의한 보증연계 투자도 약 <b>750억원</b> <b>②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협력으로 新성장 벤처투자 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1.5조원</b> 조성
	보증 : 19.4조원	<b>① 신보, 기보</b> 등 정책보증기관을 통해서도 방송·통신, 물류·운수 등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b>18.3조원</b> 지원 <b>② 농신보</b> 를 통해서도 바이오헬스 등 농업관련 신성장동력 분야에 보증 <b>1.1조원</b> 공급
문화융성 분야	대출 : 3.2조원	<b>① 산은, 기은, 수은</b> 대출을 통해 문화콘텐츠, 관광 업종에 <b>2.6조원</b> 의 신규 자금 공급 <b>② 문화콘텐츠</b> 관련된 우대·특화상품을 통해 <b>0.6조원</b> 지원 <small>* (산은) 서비스산업지원자금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하여 금리우대(최대 △0.7%p)로 900억원 공급 (기은) 영화, 방송, 공연·음악 등 중점 추진분야에 3년('14~'16년)간 7,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16년 2,500억원 공급 - (수은) 수출과 연계된 영상, 음악, 한류(음식 등)에 2,500억원 지원</small>
	투자 : 0.5조원	<b>① 문화콘텐츠, 관광 등</b> 관련기업에 <b>2천억원</b> 직·간접 투자 <b>② 정책금융기관이 VC, 엔젤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와 함께 유망서비스산업 펀드를</b> 조성하여 ICT융합, 콘텐츠 등에 <b>2,800억원</b> 투자
	보증 : 3.5조원	<b>① 신·기보 보평</b> 을 통해 문화콘텐츠, 관광 기업에 <b>2.9조원</b> 공급 <b>② 문화산업 완성보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b> 등 특화된 보증상품을 통해 '16년 <b>0.6조원</b> 공급 <small>(신·기보 각 0.3조원)</small> <small>* 문화콘텐츠의 완성을 보증함으로써 제작자금을 지원하고, 제작 완료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보증) 상환            ** 제작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전주기의 제작자금 지원</small>

## 참고 2

### 新성장 지원 선정시 우대 지원 사항

① 지원형태별 우대지원 : 연간 약 6,000억원 규모 금리·수수료 우대

① (대출: 약 49조원) 산은·기은·수은 등이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 이 중 약 17조원의 자금에 금리 우대 ⇨ 약 1,500억원 금리 절감

② (보증: 약 23조원) 신·기보 등이 보증수수료 인하 및 보증비율 확대

- 이 중 약 21조원에 대해 보증우대 ⇨ 약 500억원 보증료 절감

③ (투자: 약 8조원) 新성장 기업에 8조원 규모 자금을 우선 투자

- 만기 상환부담이 없고, 금리부담도 약 3,500~4,000억원 절감 가능

\* 금리는 3% 중반, 보증수수료는 1.2%를 가정

② 무담보·지원절차 간소화 등 우선 지원

① 담보제공 등 재무적 여력이 낮은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지적재산권(IP) 담보, 무보증 대출제공

\* 例 : 산은의 IP기반 신용대출, 기술평가기반신용대출, IP 사업화 자금 등

②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대출심사시 일부 심사절차를 생략

\* 例 : 수은의 의료기관 수출지원시 해외임상 승인을 받은 경우 기술심사 면제

## 참고 3

### 추천기관별 미래 新성장 및 정책금융기관 MOU 현황

① 추천기관별 新성장 예시

산업부	<b>① 17대 新성장('11) :</b> 3대분야(녹색기술 6, 첨단융합 6, 고부가가치 서비스 5) <b>② 미래 新산업 5대 분야 ('16) :</b>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대 분야 <b>③ 지식서비스업 (산업발전법 §8②) :</b> 제조업과 융합이 가능한 서비스업(환경복원업 전자상거래업 등 총 35개 업종) <b>④ 핵심부품·소재산업 분류(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b>
미래부	<b>① 19대 미래 新성장 동력('15):</b> 미래부 13대 미래성장과 산업부 13대 산업엔진을 통합 <b>② 과학기술 분류체계(5년 단위, 과학기술기본법)</b>
기재부	<b>① 기술집약산업, 원천기술, 신성장동력기술(조세특례제한법)</b> <b>② 7대 유망서비스업('14) :</b> 보건, 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물류, SW
개별부처별	<b>① 문화콘텐츠 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2①, 문화부) :</b> 영화, 음악, 게임, 출판·인쇄, 방송영상물, 문화재,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 전시 등 <b>② 사회서비스사업('13, 복지부) :</b> 종합사회서비스, 돌봄, 상담·재활, 건강지원, 교육역량개발, 문화체육, 사회참여, 사회서비스행정

②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MOU 현황

산업은행	<b>① 특허청('13) :</b> 우수 IP 기업 발굴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b>② 중진공('13) :</b> 중진공 지원 졸업대상 기업(예비중견)을 추천 <b>③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3) :</b> 특구내 우수기업 지원 <b>④ 미래부 산하기관('16) :</b> 미래성장동력 및 R&D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보통신진흥원, 통신사업자연,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기업은행	<b>① 특허청('13) :</b> IP금융을 위한 평가수수료 지원 <b>② 산업부('13) :</b> R&D자금을 예치 ⇨ R&D 성공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b>③ 대중소상생('14, CJ, KT) :</b> 기업예금을 토대로 협력기업 지원 <b>④ 문화부콘텐츠진흥원('15), 문화부('12) :</b> 콘텐츠 기업 지원 등
수출입은행	<b>● 콘텐츠진흥원('15) :</b> 콘텐츠 수출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	<b>① 대중소상생(SK '05, 삼성 '09, 한화 '11, LG '13, LS '14) :</b> 특별출연 <b>② 신재생에너지협회('10) :</b>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출연 <b>③ 중기청('10), 무역협회('11), 특허청·발명진흥회('13), 산업부('13), 혁신센터('15) :</b> 기업추천 및 정보교류
기술보증기금	<b>① 교육부('15) :</b> 협력 사업 준비 중 <b>② 창조경제혁신센터('14) :</b> 창조혁신기업 추천 <b>③ 인천시('15) :</b> 인천시 기업 보증료 지원 <b>④ KT('13) :</b> 협력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b>⑤ 문화부·콘텐츠진흥원('09) :</b> 추천기업에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 참고 4 미래 新성장 지원 애로 사례

### ① 新성장 분류와 표준산업분류간 차이에 따라 적용에 애로

#### ※ 新성장 동력과 표준산업분류 차이

< 17대 新성장동력 예(산업부, '14년)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개념	대표품목
첨단 융합	로봇응용	로봇	로봇 및 관련 부품제조·유동, 로봇SW 및 콘텐츠 및 파생산업	라이프케어로봇, 첨단제조로봇, 창의적 에듀테인먼트로봇, 고부가 의료서비스로봇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例 : 로봇)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조업	의료·정밀 광학 및 기계	의료용 기기 제조업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 제조업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사례 : 산업용비경화고무제조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생산 시설 지원  
산업용비경화고무제조업(표준산업분류)을 영위하는 업체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부품을 신규로 제조함에 따라 시설자금을 신청. 최초 신청시 기존 비금속 제품 담당자가 심사 하였으나, 新성장 분류에 따른 그린 수송시스템으로 분류하여 新성장 지원을 결정

※ 사례 : 동력기 생산 업체가 응용로봇 부품(모터)을 신규 생산하기 위해 지원 신청  
심사초기에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동기·발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일반 자금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추후 '응용로봇(산업용 로봇)'으로 재심사하여 新성장 지원

### ② 업종분류간 차이 발생에 따른 적용 애로 : OLED 조명 업체

#### ※ 사례 : OLED 조명업체 지원

OLED 조명 업체에 대한 초기 지원시 OLED 업종분류가 조명이 아닌 디스플레이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추가 심사 후 지원 결정

### ③ 新성장 지정 시차 발생에 따른 애로 : Heat Pump 지원 사례

#### ※ 사례 : 히트펌프(heat pump) 지원 사례

최초 히트펌프 제조업체 자금지원시 일반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추후 13대·19대 新성장 산업에 추가됨에 따라 우대 지원으로 전환

### ④ 新성장 기준이 모호(서비스업)하여 적용 애로 사례

#### ※ 사례 : 동굴관리 업체 지원

관광업에 해당하여 新성장 우대 지원하였으나, 추후 성장성·기술성 등에 있어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아 일반자금으로 전환

## 참고 5 新성장 산업-표준산업분류간 연계표(예시)

### □ 무인항공기

KSIC(5)	KSIC(5) 업종명	KSIC(8)	KSIC(8) 품목명	HSK2007 (10)	HSK2007(10) 품목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102	표시기	8531201000	액정표시단자(엘시디)가 결합된 표시판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단자(엘이디)가 결합된 표시판
				8531801000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가 결합된 표시판
				8531809000	기타
		26299103	센서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024909000	기타
				9025901100	온도센서
				9025901200	습도센서
				9025901900	기타센서
				9025909000	기타
				9026901100	레벨센서
				9026901200	유량·유속센서
				9026901300	압력센서
				9026901400	열센서(온도센서 및 열량센서를 제외한다)
				9026901900	기타센서
				9026909000	기타
				9029901100	속도센서
				9029901200	회전센서
				9029901900	기타센서
				9029909000	기타
27211	항해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102	GPS 시스템	8526913010	항공기용의 것
				8526913090	기타
27211	항해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107	내비게이션	8526919010	항공기용의 것
				8526919090	기타
				8526101000	항공기용의 것
		27211900	측량기 및 항해용 무선기기의 부품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의 것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8529909100	항해용 무선기기, 무선원격 조절기의 것
				9014901000	항공기용의 것
				9014909000	기타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101	온도 자동조절장치(공업용 제외)	9032101020	항공기용의 것
28202	축전지 제조업	28202900	축전지 부품	8507901000	격리판
				8507909000	기타

## 참고 6

## 미래 新성장 지원 추진체계 구축(안)

### ① 추천기관 : 부처·산업계·연구원 등

-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등 新성장 지원을 위해 부처별 민관 협의체 등 구축 예정

### ② 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등으로 구성

\* 新성장 정책금융센터: 정책금융협의회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내 설치하고,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필요시 기존 해외수주지원센터, 해양금융 종합센터 등과도 연계)

- 新성장의 지원과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

⇒ 정책금융협의회가 추천기관·산업계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추천기관 및 산업계의 지원수요를 수용

### ③ 新성장지원 점검단 : 금융위, 산업계, 산업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정책금융 지원 실적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지원체계 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

\* 양적점검 → 질적 점검 / 공급실적 → 수요자 만족도 / 단기실적 → 장기 효과 분석

-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추천기관·산업계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同 점검단을 통해 추진

- 정책금융협의회와 추천기관간 협업 과정에서 부처별 협조가 필요한 경우 新성장지원 점검단을 통해 조정 및 협조를 지원

